

deSilva 박사 , 히브리서, 세션 8b, 히브리서 9:1-10:18: 우리의 속죄이신 그리스도 (2부)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10장의 서두 구절에서 저자는 첫 번째 언약 희생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립합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을 뿐, 그것들의 모습을 그대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드리는 동일한 연례 희생을 통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율법을 사실상 다가올 것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전에 이 용어를 8장 5절에 있는 하늘의 장막의 지상 사본에만 적용했지만, 이제 그림자라는 용어를 확장하여 전체 제의 율법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효능이 부족하고, 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권능을 가진 의식, 즉 예수가 자신을 바치는 의식을 모호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게 그림자라는 단어는 자동적으로 우주와 현실에 대한 플라톤적 관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동굴의 우화를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굴 입구, 즉 빛의 근원에서 눈을 돌리고, 앞에 있는 벽을 바라보며,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을 보기 위해 동굴 입구 쪽으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매우 중요한 면에서 플라톤적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저자는 신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시간적 틀에 전념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직 미래에 있는 실제적인 것들의 그림자이며, 플라톤의 철학에서처럼 정신적 개념의 영역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의 관점에서 곧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며, 설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대제사장직에서 실제로 왔습니다. 토라에서 규정한 희생 제사를 매년 반복하는 것, 여기서 저자는 주로 연례 속죄일 의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자에게 그 의식이 효과가 없음을 알립니다.

그는 이에 대한 증거로 반대 주장을 제시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식이 양심을 정화할 수 있다면, 예배자들이 한 번에 영원히 정화되어 더 이상 양심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의식을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의식에는 매년 죄를 상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가정은 양심을 정화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행위여야 하며 죄가 다시 돌아와 양심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예레미야의 신탁에 있는 새 언약의 두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 있던 옛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다시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마음과 정신에 내적으로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레위 제사장직에서 행해진 끝없는 희생은 매우 다른 목표를 달성한다.

그는 죄를 없애는 대신, 이러한 죄에 대한 연례 상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민수기 5장 15절에 나오는 특정 희생 제사를 일반화한 데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주장입니다. 이 희생 제사는 간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질투하는 남편이 아내의 양심을 찢어 그녀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드린 희생 제사였습니다. 저자는 이 한 가지 희생 제사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욕 키푸르 또는 속죄일 희생 제사를 포함한 전체 희생 제사 제도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특정 법률에 대한 이런 일반화는 우리에게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저자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같은 본문인 민수기 5:15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의 희생은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상기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사용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실제로 속죄일에 대한 이념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해석을 제시했다.

실제 참여자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죄를 상기시키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6장 30절은 이 의식이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모든 암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 날, 너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져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이 할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리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의식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는 의식이 관계를 특별히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주장합니다. 그의 생각에서 여전히 결정적인 것은 첫 번째 언약과 그 의식에 따라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엄격한 제한입니다. 욥 키푸르는 토라가 규정한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하나님 접근을 실행하고 영속시켰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갈라놓은 장벽을 뚫고 나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결코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욥 키푸르의 효능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인 부정을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원칙을 추가합니다.

저자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이나 레위기 17장 11절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서 너희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노라. 생명으로서 피가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의식적 처방에서 천 년 이상 떨어져 있으며, 유대인 선지자들이 동물 희생을 비판한 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선지자들은 희생 의식이

무자비한 억압과 불의의 정당한 결과에 대항하는 약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미 처음부터 순종의 가치를 실패에 따른 속죄제보다 높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자비의 긍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불의와 착취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또한 하나님의 신탁을 되돌아보며, 마음과 삶의 헌신 없이 동물 희생을 행하는 것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만을 품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은 이 예언적 흐름의 전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제물이 내게는 얼마나 풍성한가. 나는 숫양의 번제와 어린 양의 기름으로 가득하다.

나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더 뛰어난 희생에 대한 설명 중에 이사야서의 이 본문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라는 문구를 두 번 사용했습니다.

9장 13절에서 처음 언급되고, 10장 4절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예언서에서 희생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하려는 시도였던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제도 자체의 완전한 무능함을 선언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레위의 제사장 제도에서 가능한 것을 넘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립한 저자는 이제 예수께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셨다는 자신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저자는 시편 40편 6~8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동물 희생의 무능함에 대한 자신의 급진적인 주장에 대한 주요 증거로, 또한 그러한 희생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인간 희생이 자발적으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고, 나를 위해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왔습니다. 책의 장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오 하나님여,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더 높은 곳에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는 첫 번재를 제거하시고 두 번재를 세우시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영원히 바침으로써 거룩하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에 주어진 시편 40의 인용문을 예를 들어 구약성경의 대부분 영어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시편 40의 번역본과 비교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성경의 영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인 마소라 본문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40을 일반적으로 칠십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번역본으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우리는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아니하나 나를 위하여 파신 귀는"이라고 읽을 것입니다.

당신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보라, 나는 책의 법칙에 따라 왔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여, 당신의 법은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의 귀는 토라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경청할 귀를 제공하는 것이 토라의 범법을 대체하는 것이며, 시편 기자가 여전히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동물 희생은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시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은 당신이 나를 위해 파신 귀를 당신이 나를 위해 준비한 몸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변화는 귀를 파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표현하는데 너무 추하거나 단순히 너무 의인화된 이미지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미적으로 기분 좋은 이미지로 도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본문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토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규정을 이행할 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속죄 제사를 뒤따른 범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시편을 예수의 입술에 적용했을 때 매우 다른 해석을 발견합니다.

이 설교 전반에 걸쳐 이미 마주친 그의 주해적 관행입니다. 동시에 그는 더 최근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오래된 선언을 바로잡고, 명확히 하고, 심지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그의 원칙에 따라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동물 희생을 제정하셨을 수도 있지만, 수세기 후에 시편 기자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 신탁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에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편의 인용문을 “그러므로 그가 곧 예수의 아들로써 세상에 오실 때”라는 구절로 시작할 때, 그는 시편 구절을 해석하기 위한 해석적 맥락을 미묘하게 설정합니다. 몸의 준비는 이제 아들이 많은 자매와 형제가 공유하는 삶과 피를 취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말씀은 마치 성육신에서 육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본문을 낭송한 후 저자는 두 번째로 시편 본문을 낭송하면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꺼이 순종하는 다른 종류의 제사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위해 이전의 제사인 번제와 동물 제사를 대신할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시편 40편에서 동물 제사가 신-인간 관계에 중요한 것을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권위 있는 성경적 근거를 찾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사를 위해 이것들을 제쳐두셨습니다.

저자가 직접 기록했듯이, 그는 두 번째를 확립하기 위해 첫 번째를 제쳐두거나 제거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의미는 10

절에서 명확히 밝혀집니다. 이 뜻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번만 영원히 바침으로써 거룩해졌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시편 인용문의 세 가지 핵심어를 재맥락화하여 본문을 제공하고 이 시편 본문에 대한 그의 결정적인 해석에 그것들을 포함시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나은 수단으로서 토라 준수에 대한 헌신의 선언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의 몸의 자기 희생을 통해 성취되는 수단을 알리는 신탁으로 변형됩니다. 성경은 따라서 초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었던 이상한 희생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저자는 그의 중심 주장을 결론으로 이끕니다. 그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에 대한 그의 설교에서 두드러지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이 효과적이라는 그의 주장을 놀라운 방식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고 죄를 결코 없앨 수 없는 동일한 제사를 자주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위해 한 번의 제사를 드린 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원히 앉아 계셨으며,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는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시편 110편 1절의 의미, 즉 예수의 제사장직을 위해 예수가 앉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편 110편 4절의 주제입니다. 서 있는 것은 장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세로 알려졌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은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된 자들, 인용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들로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신명기 18장 7절에서 다시 인용하자면 주님 앞에서 섬기기 위해 서 있는 자들이라고 묘사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시편 110편 1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저자는 이 본문이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추론합니다.

이 시편은 반복적인 숭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제사장직을 제시하는데, 이 활동은 제사장이 서 있어야 하는 활동입니다. 대신 시편 110편 1절은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승천과 적들의 최종적인 정복 사이의 긴 중간 기간 동안 앓을 수 있는 제사장적 행위가 완료되는 것을 예상합니다. 시편 110편의 두 번째 부분인 1절로 돌아가서,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저자는 또한 9장 26절에서 28절에서 울려 퍼뜨린 종말론적 화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예수가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의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9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동반자나 친구가 되기보다는 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수신자 중 헌신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예수의 명예를 옹호하신 하나님께서 둘 다 극악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항하여 예수의 의뢰인들의 명예도 옹호하실 것이라는 환영할 만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헌신에 흔들리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개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철회하는 것의 이점을 숙고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대안들이 그들이 기독교 집단 안에 머무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교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시작하는 구절에서 이어지는 권고에서 이를 강조할 것입니다. 양심의 정화를 즐길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전례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반대로 극단으로 가서 아들을 원수로, 하나님을 심판자이자 형벌의 대리인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10장 14절을 약속, 아니, 10장 1절에서 발표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세 가지 공통된 용어나 구절이 1절과 14절을 포함, 즉 이 구절을 둘러싼 언어적 책갈피로 표시합니다. 토라가 규정한 영구히 바쳐진 제사는 하나님께 이끌린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배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유되는 세 가지 용어는 제공, 영구히, 완전함이며, 이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1절에서 제기된 문제가 이제 14절에서 그리고 그 시점에 해답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장에서 이 긴 설명에 이어지는 권고의 첫 번째 문단, 19-22절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의한 새롭고 더 완전한 정화가 가져온 이점을 유지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이 권고는 또한 4장 14-16절의 앞선 권고와 유사하여, 본질적으로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한 설교의 중심 주장 전체가 4장 14-16절에서 이전에 주어진 권고가 왜 듣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더 나은 도시와 고향으로의 기독교 순례에서 인내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도움에 접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자는 이 중심 부분을 예레미야 31장을 두 번째로 낭송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이번에는 33절과 34절만 낭송하여 그의 담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 31 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전부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그 구절 중 일부를 다시 인용하여 저자의 설명을 위한 일종의 성경적 QED 역할을 합니다.

선언이여, 보십시오, 내가 증명하고자 했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적 신탁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의 활동에서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보다 더 낮은 권위는 저자가 설명한 것의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 데려와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는 내가 그 날 이후에 그들과 맺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도 기록할 것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범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기본이 되는 전제이자 설교자의 청중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예레미야의 신탁에 따르면 죄에 대한 결정적인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저자가 주장한 것이 진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저자는 새 언약의 약속의 두 가지 구성 요소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죄를 제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내적 인식을 사람들에게 갖추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자는 또한 회중에게 새 언약에 따라 제공되는 두 가지 혜택을 붙잡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이 중심 담론의 전후에 그들에게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점을 잡으라고 부르고, 설교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삶을 살라고 부릅니다. 그가 여기 결론에서 쓴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을 위한 자리가 없으며, 그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진술은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효능에 대한 확언으로 긍정적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몇 번 숨을 쉬고 난 후, 10장 26절에서 31절에서 저자는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로 돌아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이 결정적이고 마지막 속죄 제물을 바친 분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가장 위협적인 경고의 일부로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장 18절은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한 저자의 중심 담론의 후반부로, 이 설교에 대한 저자의 수사적 목표를 여러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의 죽음,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핵심 신념을 강화합니다.

설교자는 이러한 사건들이 죄에 대한 결정적인 속죄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에 들어가기에 결정적으로 적합하게 된 것으로 제시하며, 그는 또한 예수의 죽음과 승천이 새 언약의 시작, 그 약속의 제정이라는 의미를 확립합니다. 둘째, 저자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천상의 의식 행위를 제시하면서, 예수의 승천, 보이는 영역에서의

그의 떠남 이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청중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초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청중에게 다른 영역의 현실성과 죽음 너머의 활동의 현실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특히 중요한데, 저자는 듣는 사람들이 이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의 삶을 위해 살도록 의도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 삶의 재물, 이 물질적인 가시적 세계의 재물을 계속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천상 영역에 있는 것을 위해 소유하도록 의도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그들이 그 영역을 현실, 즉 예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곳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실제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생각하도록 더 많이 참여시킬수록, 그는 그들이 이 세상, 이 가시적 현실을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현실로 생각하는 것에서 더 많이 해방시킬 것입니다. 셋째, 저자는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얻으셨고 그들이 예수께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누리고 있는 비할 데 없고 전례 없는 이점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이점의 제시는 저자의 권고의 기초가 되며, 이는 그가 이미 4장에서 시작한 권고와 그의 설교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할 후속 권고 모두입니다. 이 장들은 우리가 제자도와 사역에 대해 우리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레위 제도 하에서 하나님께로의 접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저자의 비판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의 접근을 제한하고 우리의 기독교 회중 내에서 새로운 위계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직자는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지만, 평신도와 성직자 간의 구분이 히브리서 저자가 레위 제도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발견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점진적 접근을 다시 제정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성직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 동등하게 부여하신 신권의 모든 신도를 위한 촉진자 및 장비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중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성직자는 또한 사역 전문가,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신의 사제적 사역을 위해 예수께서 바치신 것으로

기록해진 교회의 모든 목사를 장비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하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성직자와 비교할 때 자신의 삶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을 위험도 있고,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 헌신이 그들에게 부여한 책임을 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는 13장에서 신자들에게 예배, 증거, 사랑과 봉사의 희생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평신도의 일상 활동을 사제 활동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전임 사역 전문가들의 일을 존중하고 성직자들이 회중에 가져오는 것을 존중하는 한편,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통해 극복하신 것으로 본 분열, 즉 사실상의 카스트 제도를 다시 제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데 대한 모든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우리 모두는 기도와 전도를 통해 부지런히 사역하고 제사장의 합당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선포하고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열어 주신 하나님과의 새롭고 친밀한 관계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도록 요구받습니다. 둘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죽음, 부활, 승천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제사장적 사역과 예수께서 두 번째로 돌아오실 때 아직 하실 일 사이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남겨둡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그의 적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임무는 화해한 신성한 후원자에게 충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믿지 않는, 때로는 조롱하는, 때로는 적대적인 사회에 직면하여 충성심을 보이고, 히브리서 9:28에서 저자가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의 활동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실 그 날을 고려하여 우리의 야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야망이 이렇게 집중되면, 우리가 증거, 예배, 사랑의 행위, 나눔에 몰두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양심의 새로운
더러움을 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